

#1.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사안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과 관련해 여성 비하 및 한일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촉발된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결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간혹 경영자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기(risk)에 직면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risk)’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한국콜마 상황과 같이 회사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10 회에 걸쳐, 아래 키워드를 통해 **(1) 기업들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2)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3)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중요 계약의 중도해제, 손해배상
2.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
3.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형사 및 정치적 사건에의 연루
4. 경쟁사업자의 사업, 상표, 서비스표 도용
5. 영업비밀의 유출 및 도용
6. 주요 임직원의 경쟁사 이직

7. 투자자와 회사와의 분쟁
8. 근로자 또는 고객에 대한 갑질 이슈
9.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10. 세무조사 등 세무적 risk 에의 노출

이번에 세움은 기업들의 위기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 형사, 민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 예방·관리 팀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9 SEUM Law.

정호석 변호사

Partner

hoseok.jung@seumlaw.com